— 109 —

기관지내 전이암의 임상적 특징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폐질환연구소

김도훈*, 박무석, 정재호, 김영삼, 양동규, 김세규, 장준, 안철민, 김성규

목적 : 폐는 악성종양이 흔히 전이되는 곳으로 폐실질, 흉막, 혹은 임파선으로 주로 전이된다. 기관지내 전이는 흔하지 않아 굴곡성 기관지내시경 검사상 육안적으로 보이는 전이암의 발생율은 2%정도로 알려져있다. 국내에서도 기관지내 전이암에 대한 고찰이 많지않아 여러 증례보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자들은 굴곡성 기관지내시경으로 확인된 증례들을 대상으로 기관지내 전이암에 대한 임상적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1991년 1월부터 2001년5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굴곡성 기관지내시경으로 병리조직검사를 시행하여 폐외 악성종양의 기관지내 전이가 확진된 31예에 대해 굴곡성 기관지내시경 소견과 임상양상, 흉부전산화 단층촬영소견, 그리고 치료방법과 예후등을 후향적으로 조사, 비교하였다.

결과 : 1) 대상환자는 남자 19예, 여자 12예로 평균연령은 53세이었다.

2) 원발종양은 직장암 7예, 자궁경부암 4예, 위암 3예, 유방암 3예, 갑상선암 2예, 골육종 2예, 흑색종 2예, 그리고 간암, 전립선암, 혈관육종, 섬유성조직구종이 각각 1예이었으며 원발종양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가 4예이었다.

3) 원발종양의 진단부터 기관지전이의 진단까지의 시간간격은 1개월에서 160개월이었으며 평균 52개월이었다. 원발종양보다 기관지전이를 먼저 진단한 경우는 미확인 원발종양 4예를 포함하여 9예이었다. 주증상은 기침이 13예(42%)로 가장 많았으며, 흉부엑스선의 주된 소견은 단일결절과 폐문부종괴가 각각 8예(26%)였고 무기폐가 7예(23%)이었다.

4) 기관지경에서 보이는 병변은 모두 42곳으로 엽기관지 15예(36%), 구역기관지 9예(21%), 주기관지와 중간기관지가 각각 8예(19%)였으며 우측이 21예(68%)로 좌측 7예(23%)보다 많았다. 주위의 종괴없이 직접 기관지로 전이된 일차성병변이 11예(35%)이었고 주위의 종괴나 임파절의 침범에 의한 이차성병변이 16예(52%)이었다.

6) 수술한 경우가 8예(26%)였으며 그 외에 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등을 시행하였다.

결론 : 기관지내 전이암은 임상에서 흔하게 경험하는 질병이 아니며 원발성 폐암에 비해 고식적 외과수술이 권장되고 있다. 따라서 원발성 폐암이 의심되지만 전형적이지 않은 임상증상을 갖거나 비전형적인 조직소견이 관찰되면 폐외 악성종양의 기관지내 전이를 염두에 두고 진단적검사를 시행한 후 치료를 시작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 110 —

주폐경기 여성의 골다공증 유병률과 연관인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울산대학교병원 골다공증연구회, 울산광역시 동구 보건소*,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상계백병원 내과학교실†

김영일*, 양승오, 전대준, 김문찬, 정태흠, 이윤구*, 이병두†

골다공증의 유병률은 인종과 민족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일반 인구집단의 유병률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상태이다. 더욱이, 여성에서 골량을 유지하기 위한 치료의 가장 좋은 시기는 난소 기능의 소실로 골소실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골다공증의 치료가 가장 도움이 될만한 폐경기 여성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연자 등은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49-54세 여성 3,822명중에서 1,629명의 골밀도를 측정하고 골다공증과 골감소증 유병률을 조사한 후, 낮은 골밀도와 관련된 인자를 분석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또한 젊은 여성의 골밀도 참고치를 위해서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20-35세 여성 127명의 골밀도를 측정하였다. 연관인자 분석에서는 폐경상태를 알 수 없거나, 이미 골다공증 치료를 받았던 609명을 제외한 1,02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주폐경기 여성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요추골이 9.8%, 대퇴골경부가 1.4%이었고, 골감소증 유병률은 요추골이 30.7%, 대퇴골경부가 24.4%이었다. 골다공증과 관련된 과거력이 없는 주폐경기 여성의 폐경상태와 체중은 요추골 및 대퇴골경부의 낮은 골밀도(T-score < -1.0)와 연관성이 있었고, 초경연령은 요추골의 낮은 골밀도와 연관성이 있었다. 폐경 전 여성의 체중과 초경연령은 요추골 및 대퇴골경부의 낮은 골밀도와 연관성이 있었다. 폐경 후 여성의 체중과 폐경 후 기간은 요추골 및 대퇴골경부의 낮은 골밀도와 연관성이 있었으며, 칼슘 섭취량은 대퇴골경부의 골밀도와 연관성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폐경 후일수록, 체중이 적을수록, 초경연령이 높을수록, 폐경 후 기간이 길수록, 칼슘섭취량이 적을수록 골밀도가 감소하여, 이상의 연관인자를 갖는 주폐경기 여성에 대한 선별적인 골밀도 측정과 골다공증 예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